

■ (언론 동향) 2021.10.17. "한국농정" 보도

○ [국감] 창립 60주년, 아직도 '농협답지 못한 농협'



15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각 지주회사·자회사 관련 임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 제공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와 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및 금융자회사들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15일 열렸다. 업무현황 보고에서부터 '창립 60주년'을 강조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향해 의원들은 축하를 건넸지만, 본격적인 발언에선 60주년이 되도록 여전히 '농업 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소홀한 농협의 현주소를 저마다 소리높여 질타했다.

유통문제, 농협이 앞장서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유일하게 농민이 아닌 기업 관점에서 감사를 진행했다. 주 의원은 농협경제지주의 비료 계통구매 사업에 대해 "비료업체들이 농협에 원가대비 50~60% 가격에 상품을 납품하고 있다. 농협이 국내 무기질비료 공급의 97%를 점유해 가격을 후려 치고 있다"며 "비료업체들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회사가 돌아가게는 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장철훈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농가 입장에서 농업 생산원가 절감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있는 것 같다. 비료수급도 중요하니 앞으로 업체와 충분히 논의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 권순창 기자 >